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한 달간 현장 일자리대장정 돌입

ZOOM IN

- 365일 패션쇼 열리는 패션일상도시 서울 만든다
- 수제화 1번지 성수동, 사회적경제로 산업기반 강화

HOT ISSUE

- 서울시, 싱가포르 재보험사 ACR과 금융중심지 서울 조성 협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한 달간 현장 일자리대장정 돌입

서울시가 한 달간 99개의 '일자리 현장'을 직접 찾는 일자리대장정을 추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일자리에 관한 현실과 어려움을 듣고,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며, 산업발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미래 일자리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현장
직접 찾아 현실적
정책 모색,
숫자 늘리기 아닌
일자리 질에 주목**

이번 일자리대장정은 박원순 시장을 필두로 관련 정책추진 부서가 함께 일자리 관련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산업계와 일자리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단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일자리의 질에 주목하겠다는 것도 대장정의 목적 중 하나다.

**일자리 문제,
현장에서 길을 묻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의 미래를 말하다**

이번 일자리 대장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 <일자리 문제, 현장에서 길을 묻다>는 청년·여성·베이비부머·어르신·취약계층 등 대상별 시민들을 찾아 일자리 문제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자리다. 2단계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일자리 창출 우수 모델과 산업현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했으며, 3단계 <서울의 미래를 말하다>는 서울의 유망산업 육성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생태계 구성에 힘을 더하는 시간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모든 일의 1순위는 시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65일 패션쇼 열리는 패션일상도시 서울 만든다

서울 명소, 야외공연장, 버스 정류장 등 모든 곳이 런웨이가 된다. 365일 시민들이 직접 연출한 '열린 패션쇼'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최해 패션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대문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쇼룸을 설치하고 패션쇼와 박람회와 결합된 트레이드쇼도 개최해 신진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이제 서울시는 전 세계인들이 서울 하면 '패션'을 떠올릴 수 있는 '아시아 대표 패션도시'로 거듭난다.

**차세대 패션인력 양성,
패션쇼+박람회
트레이드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첫째는 서울 패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진디자이너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진디자이너 대상 고강도 오디션 '서바이벌 패션 K'를 개최해 수상자들의 해외진출, 홍보마케팅 등 적극적인 데뷔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33세 미만의 현업종사자와 패션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모델리스트(패턴사) 콘테스트도 실시해, 국내 패션 대기업 인턴십을 비롯해 해외패턴 전문학교 연수 등 맞춤형 취업알선을 한다.



둘째는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쇼와 박람회가 결합된 트레이드쇼 개최, 국내·외 쇼룸 설치 등 신진디자이너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우선, '서울 패션위크'와 아시아 신흥 패션위크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다국적 디자이너 및 해외바이어 교류를 통해 서울 패션위크를 아시아 대표 패션 페스티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패션쇼와 박람회가 결합된 트레이드쇼 '제네레이션 넥스트 서울'도 개최해 중소패션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국내 최대 패션 메카인 '동대문 패션상권'을 활성화한다. 동대문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의', '식', '주', '볼거리', '즐길거리' 등 5가지 테마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고 '복합 체험형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이간수문전시장에 신진디자이너 제품 홍보 쇼룸을 운영해 입점브랜드의 공동 마케팅과 브랜딩 제작은 물론 신진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돕는 공동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도 한다.

ZOOM IN | 02

수제화 1번지 성수동, 사회적경제로 산업기반 강화

최근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로 성수동을 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수동=구두'를 떠올릴 정도로 대한민국 수제화 1번지로 알려진 가운데 몇 해 전부터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회혁신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오래된 골목이 '소셜벤처밸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성수동의 대표 브랜드 육성과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기 위해 서울숲 인근에 핵심전략 기반으로 2018년까지 연면적 최대 1만㎡의 '성수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특히, 성동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선정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특구(관악, 광진, 성동, 성북, 마포, 노원)'로 지정되면 ▲도시재생계획 등 서울시 정책 추진 시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투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전략사업 지원 ▲기금 조성, 금융특례, 상설 지원조직 운영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및 통합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비(550백만 원)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 초 이들 기관과 '성수지역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핵심전략시설인 '성수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2018년까지 서울숲 근처에 연면적 최대 1만㎡ 규모로 우선 조성한 뒤 2020년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성수 특화산업 클러스터'는 첫째, 공간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해 윈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전담하기 버거운 홍보·마케팅, 특화시장 개척(공공구매 등), 판로확보(수출, 상품기획 등) 등을 업체들끼리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청년들의 혁신적인 활동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술창업학교'와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혁신 디자인대회'를 개최해 매년 20개 팀 이상 우수 디자이너를 선정해 제품개발비 및 생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싱가포르 재보험사 ACR과 금융중심지 서울 조성 협력

서울시가 세계 50대 재보험사 중 하나인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 캐피탈 리인슈어런스(ACR, Asia Capital Reinsurance)와 서울의 글로벌 금융 허브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하는 ACR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보험사로 항공, 에너지, 공학, 해양, 의료 분야 등에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CR은 서울 금융시장에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의 서울 진출 및 사업 확대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13일(화) 금감원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2015 파이낸셜 허브 서울 콘퍼런스(Financial Hub Seoul Conference)」를 개최한데 이어, 15일(목)에는 싱가포르 바클레이스(Barclays) 은행 아시아 지역본부와 싱가포르 투자청을 방문해 아시아 거점 지역으로서의 서울의 가능성을 알리고, 서울 진출 시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글로벌 수준의 금융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 금융사들에게 서울이 매력적인 금융중심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등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